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 동 효

- 제주 오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08학번 문동효라고 합니다. 먼저 얼마남지 않은 사법시험을 위해 부단히 공부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주시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진지한 자세로 저의 수험기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법시험 합격비결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대로 꾸준히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합격에 특별한 비결이 없어, 수기 쓰기를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평범한 것이 고시생활에서는 무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사법시험 응시요건이나 과목, 일정 등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소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수험생활의 각 기간마다 했던 공부들, 느꼈던 느낌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II. 1학년, 2학년시절(2008년, 2009년)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의 꿈을 품고 있었고, 다른 고민 없이 법학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당시에 이미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부터, 시험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이미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군대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법대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2학년까지 마쳤을 때 응시요건인 법학과목 35학점이 이수되기 때문에 3학년이 되는 해에 1차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목표는 3학년이 되는 해에 1차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년, 2학년 때의 공부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학생활을 하며 마음이 들떠서인지 공부에 많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를 시간날 때 마다 들으려고 했으나, 학교 시험인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쳐야했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다보니 사실상 거의 공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도 많이 했고,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도 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 놀았던 것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결국 2010년 저의 첫 1차시험은 거의 시험장에 소풍 다녀오는 느낌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1년 휴학하기로 하고 고시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는 신림동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Ⅲ. 신림동에서의 1년(2010년)

고시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대부분 처음 하는 고민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지, 신림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신림동을 들어가는 것은 저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보자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일종의 도피 혹은 도박과도 같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성향이 다르고, 신림동에 들어가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부로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쪽 공부를 해왔고 학교 도서관의 환경이 더 집중이 잘됐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의 수험생활이 좀더 몸에 맞았습니다.

신림동에서 1년은 1차시험 과목인 헌법, 형법, 민법에 대한 기본강의를 실강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분명히 이 때 저의 기본적인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림동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터디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학교처럼 고시반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로울 뿐만 아니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원래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었으나, 고시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림동에서 3월부터 8월까지의 굳은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었으나 가을이 오면서 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점수는 상승했으나 합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2011년 1차시험도 볼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Ⅳ. 나에게 맞는 공부 분위기를 찾아라(2011년, 2012년)

2011년에 학교에 돌아오고 나서는 1학기는 학교를 다니고 2학기는 휴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학기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려고 마음을 먹

었으나 역시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고,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같은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형 한분과 동기 한명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법학관에 있는 법학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같이하는 스터디가 아니고 밥만 같이 먹는 스터디라고 할지라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가기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더라도 버티게 되고,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서로 의식도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평소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기상스터디도 구해서 부지런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림동에서 슬럼프를 겪은 저로서는 학교에서의 공부가 더 맞았습니다. 2012년 1차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과목에서 그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언제나 어려운 과목인 민법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아쉽게 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고, 만약 떨어지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치고 나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다는 것도 알았고, 점수도 많이 올라서 가능성을 봤는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번 더 1차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저는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고시반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2차시험도 재시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방법론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V.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1. 제1차시험(2012년) – 내 자신을 알기. 그리고 반복

1차시험은 기본 3법이라 불리는 헌법, 형법, 민법과 선택과목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식 40문항입니다. 8지선다이고 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판례 결론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독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확실하게 아는 것을 과감하게 지우고 자꾸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을 체크해가며 봐야 합니다. 8지선다의 경우 전체 지문 중 한 지문만 모르더라도 문제 자체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라고 해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모든 지문을 OX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미묘하게 다른 지문들을 객관식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를 풀 때 발견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지문을 찾아서 반드시 비교해보고 그 순간에 확실히 차이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판까지 가서도 계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몇 회독을 했느냐, 즉 책을 얼마나 반복적

으로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수험가의 정설이지만, 반복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9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진도별로 40문항씩 문제가 출제되어서 진도강제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진도 자체가 버거울 수도 있고,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틀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틀린 문제를 복습하면서 4개월가량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모두 마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연습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일단 부딪혀보고, 그렇게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끝까지 기억에 남고, 결국 합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양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나와 다른 책이나 자료를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그것들을 또 구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모든 자료를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판에 가서는 준비한 책과 자료를 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목마다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기본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추가로 기출문제집 정도를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책을 믿고,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알겠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신감을 갖는 데도 좋습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에 의해 검증된 책들은 어떤 책이든 간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합격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 제2차시험

(1) 초시(2013년) - 부담없이, 하지만 진지하게!

1차시험 합격의 기쁨도 잠시, 2차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엄습해왔습니다. 2013년도 1학기를 휴학하고 초시도 어느정도는 준비해보고 싶었으나, 두 학기 밖에 남지 않은 휴학을 2013년도 2학기, 2014년도 1학기에 써서 재시에 승부를 봐야 했으므로 1학기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 학교에서 해주는 예비순환강의를 통해서 2차시험에서 추가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스스로가 초시로 붙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합격한 선배들도 초시 때는 전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표를 강의를 빠짐없이 수강하고, 가끔 있는 시험도 빠지지 않고 치는 것으로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초시를 치는 4일 동안은 마음을 비우고, 법전을 활용해서라도 답안지를 꼭 채우고 나오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당연히 합격은 못했지만 7과목 중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이 과락을 면했는

데, 오히려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재시(2014년) - 꾸준함과 끈기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여름 2차시험까지의 1년이 저의 수험기간 동안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기간이기도 했고, 그만큼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재시에서 떨어지면 1차시험 합격한 것도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담감은 어느 때 보다는 심했습니다. 저는 이 때에도 딱 한 가지 목표만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의를 빠지지 않으며, 학교에서 각 순환별로 시행되는 모든 시험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응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각 순환별 시험만 모두 응시하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2차 시험은 장기전이라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되기가 쉬운데, 끝까지 붙잡고만 있으면 붙는다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학교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 좋은 것이 과목 별로 촘촘하게 진도가 짜져 있어서, 굳이 스스로 별다른 계획을 짜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뒤쳐져도 진도가 밀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아파도 오래 아프면 안 되는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이 끝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또한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자극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스태워치를 사용해서 실제 공부시간을 체크했는데,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등도 제외하여 순수 공부시간으로 10시간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기상스터디를 해서 8시 반까지 학교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밥은 같이 공부하던 2차생 형과 함께 들어서 먹었는데 점심 먹는 시간과 저녁 먹는 시간을 합쳐서 1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책상에 엎드려서 15분 내지 20분 잠을 자는 시간을 오후, 저녁으로 한번 씩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순수 공부시간을 10시간은 확보할 수 있었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12시간 정도씩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부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하지만, 사법시험 공부의 양이 많고, 수험생활이 길기 때문에, 일정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은 과목별로 기본서 한권씩을 봤습니다. 사례집과 기출문제집도 불안한마음에 모두 구매는 하였으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의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진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다보면 기본서만 다 읽는데도 시간이 벽났습니다. 대신 학교 교수님 모의고사를 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봤고, 실령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선에서 양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대비하지 못한 쟁점들이 간혹 출제되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써보려는 연습들이 시험장에서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쓰는 연습은 사마헌에서 하는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례집이나 기출문제집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끝까지 불안요소로 작용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봄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보고 전체 체계를 조망하는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시험은

4일간 진행되는데 전날에 다음날 칠 과목들을 한번 다 훑을 수 있을지가 관건임을 준비과정에서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양을 늘리기 보다는, 믿음직한 기본서 한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목마다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저는 실천하지 못했으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애초에 포기했지만, 막상 작성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판에는 시간 절약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활에서 정말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건강관리와 멘탈관리입니다. 저는 스스로 몸이 허약한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험기간 동안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는 체력적인 문제로 힘들었고, 심지어는 시험을 치는 것에 집착하여 무리하다가 오른쪽 손에 이상이 생겨서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도저히 펜을 쥐고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열심히 해 온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좌절도 했지만, 그 때부터 한의원에서 가서 침을 매일 맞고,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펜을 쥐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시험을 치는데 큰 장장은 없는 정도로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나름대로의 꾸준한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을 아주 많이 하는 타입이고, 긴장을 하면 잠을 못자서, 1차시험 때부터 2차시험때까지 잠을 제대로 자고 시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잠을 못자면 확실히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인드컨트롤을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취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년 반 동안의 수험기간동안 단 한 번의 강의도 빠지지 않았고, 단 한번의 시험도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하며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 수험기간도 길지 않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했던 것이 저에게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Ⅵ. 맺으며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실수도, 모교에서 공부를 하실수도, 기타 고시원 등에서 공부를 하실수도 있겠으나 제가 맺으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라’입니다. 계획을 잘 짜시고,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당일의 할 일을 당일에 마친다면 그것들이 꾸준히 쌓여서 결국 합격이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수강했던 강사명, 보았던 교재명 등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이기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뜻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여러분도 사법시험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법조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저의 수험생활을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부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